

수렴청정·섭정 굴레 속에서 척불정책 걷어낸 최초 황제

59 26대 고종과 명성황후 - 흥릉(1)

고종 1852~1919(68세)
재위 43년 7개월
1863.12(12세)~1907.8(56세)
명성황후 1851~1895(45세)

42기의 조선 왕릉 중 흥릉(고종 능)과 유릉(순종 능)에만 없는 것은 뭘까? 답은 정자각(丁字閣)이다. 정자각은 조선 왕릉의 표본인 태조의 건원릉부터 25대 철종의 예릉까지, 조선의 마지막 두 왕인 26대 고종과 27대 순종 능을 제외한 모든 왕릉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왕릉 입구인 홍살문과 봉분 사이에 자리한다.

선대왕의 제사를 모시던 정자각은 조선 왕릉의 핵심 구조로 꼽힌다. 평면이 '丁(정)' 자 모양이라 '정자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런데 흥릉과 유릉에는 정자각 대신 'ㅡ' 자 모양 침전(寢殿)이 있다. 왜 그럴까. 비밀은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에 있다. 고종은 조선이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선포하고 황제가 됐다. 이후 왕릉 형식도 'ㅡ' 자 모양 침전이 있는 중국 황제릉과 비슷해졌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광무라 했다. 고종은 황제 폐하다. 그러나 여러 제후국의 왕들을 거느린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침몰해가는 조선국 함대의 외로운 황제다. 그렇더라도 격상해서 조선 함대를 일으켜 세우려는 몸부림에서 나온 눈물겨운 황제 폐하다.

고종은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여흥순목대원비 민씨의 둘째 아들이다. 순종, 현종, 철종 3대에 걸쳐 막강한 세도정치를 펼치던 안동 김씨 일파는, 철종의 후사가 없자 뒤를 이을 국왕 후보를 두고 왕손들을 지극히 경계했다. 흥선군 이하응은 안동 김씨의 화(禍)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해서 정잡배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며 몸을 낮추고 있었다. 심지어 안동 김씨가 문을 찾아다니며 구걸을 하기도 했다. 이런 호신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흥선군은 철종의 죽음에 임박하자 궁중 최고 어른인 현종의 모후 조대비와 연줄을 맺어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名福)이를 왕위에 앉히려 한다. 조대비 역시 그동안 안동 김씨의 세도에 짓눌려 지냈기에 의기투합했다.

1863년 12월 8일 철종이 승하하자 조대비는 재빨리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

을 양자로 삼아 익종의 대를 이은 왕릉을 설정하여 대릉을 계승하도록 지명한다. 명복을 익성군에 봉하고 관례를 거행, 12월 13일 국왕에 즉위케 한다. 전광석화 같은 인생역전 작전이다.

이때 고종의 나이 12세였다. 고종 역시 철종과 마찬가지로 정식 제왕수업을 받고 즉위한 왕이 아니다. 세력간 경쟁에서 엉겁결에 떠밀려서 옥좌에 앉은 왕이다. 왕의 앞날에 놓인 것은 수렴청정과 섭정의 굴레였다.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고 흥선군을 흥선대원군으로 높여 섭정의 대권을 위임했다. 대원군은 향후 1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자신의 의지대로 정사를 운영했다.

한편 1866년(고종3년) 3월 20일, 흥선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府夫人) 민씨의 천거로 민씨족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니 이가 곧 명성황후이다. 여덟 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혈혈단신 고아로 자란 민씨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이유가 있다.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60여년간 세도정치의 폐단과 독성을 경험한 바 있어 외척이 적은 부대부인 민씨의 집안에서 왕비를 맞아들여 외척이 날뛰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대원군의 의지 때문이었다. 그러나 훗날, 시어머니에 의해 천거되고 시아버지에 의해 발탁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으니 역사와 운명은 눈 밝은 선지식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고종이 어느새 20세를 넘겨 성인이 되자 친정(親政)의 의무를 강하게 나타냈다. 거기에다 고종 비 민씨가 노대신들과 유립들을 앞세워 대원군의 하야(下野) 공세를 발했다. 1873년(고종 10) 마침내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지만 사실상 정권은 민씨의 척족들이 장악하게 된다. 대원군이 그토록 우려했던 외척정치가 또다시 시작됐다.

고종조는 불교사에 있어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시대적 흐름과 필요에 의해 고종 때부터 척불정책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종 2년(1865), 경북군 중수를 위해 3년간 승려들의 도성출입을 허락하고 노역에 임하도록 했다. 32년(1895), 왕명에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종과 명성황후 흥릉의 능침, 흥릉의 우물, 고종과 대신의 전화통화 재현 그림.



의해 모든 승려들이 도성에 출입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았다. 승려의 도성출입은 역불을 국시로 삼은 조선조에 있어서 획기적 조치다.

광무 2년(1902), 칙령을 내려 궁내부에 소속된 사사관리사에서 전국 사찰에 관

한 모든 사무를 맡게 했다. 7월에는 36조항의 사찰령을 발표했다. 사찰령에 따라 법회 개최, 포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승려의 법계와 지위, 승려 복식의 3계급, 사원의 등급, 승려의 도첩이 승인됐다.

고종은 보수세력과 일부 개화파들을 끌어들이어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일동맹,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조선의 식민지화를 승인받았다. 또한 일본은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해 외교권 박탈과 내정간섭을 본격화했다.

이해 고종은 1907년(광무11) 헤이그 만

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일본전략의 부당성과 을사조약 무효를 세계에 호소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해에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1910년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이태왕으로 불리다가 1919년 1월 21일 68세로 승하했다. 이 때 전국 각지에 그가 일본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져 거족적인 분노를 자아냈다. 슬픔과 분노 속에 치러진 그의 장례식날인 3월 1일, 거족적인 3·1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글=이우성(소설가 asdfsang@hot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세도정치 폐단 막고자 외척 적은 명성황후 간택... 흥선군과 대립 대한제국 선포, 중국 황제릉 본따 정자각 대신 일자 침전 조성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정호승	1975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원병대	1971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충주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울	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사원	서울	고병진	1975년생	163	대졸	회사원	서울
노해웅	1972년생	173	고졸	C E O	대전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박대현	1977년생	168	고졸	회사원	충주	김지경	1970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박법진	1975년생	182	고졸	공무원	충주	김정준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서울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문운중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박경하	1952년생	177	대졸	무연업	서울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직	구미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경	충주	전준석	1957년생	167	고졸	회사원	안동
임태빈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인천	민희식	1969년생	172	고졸자	회사원	서울	양명진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인천	오영일	1951년생	170	고졸	회사원	안동
김기업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이용철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강태욱	1975년생	169	대졸	회사원	인천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영업	충남	안태영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서울	김용진	1968년생	160	대졸	회사원	인천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시흥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영업	경기도	이경술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영술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경기도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원	서울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서울	심명길	1971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도
한용서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부여	박현준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배중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경기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졸	회사원	서울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전주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도	김상기	197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서울	배덕열	1976년생	168	대졸	회사원	경기도
이경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연길호	1973년생	169	대졸	회사원	경기도	이중호	1976년생	163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배복덕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인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박성준	1965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구시	오진철	1974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도	최병덕	1968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박종우	1971년생	164	고졸	건설사	제천시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아산시	유도석	1971년생	167	고졸	회사원	아산시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최용우	1962년생	170	고졸	자영업	홍성군	최성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서울	유도석	1971년생	167	고졸	회사원	대전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졸	공무원	경기이천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제조업	경기도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연습	서울	유정환	1974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김진원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사	충청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공무원	서울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인천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구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융	충청	조경정	1945년생	171	대졸자	영업	경기도
정지영	1974년생	174	고졸	회사원	수원	서정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대전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이건우	1971년생	173	전문대	발견공사	강원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경기도						
이현철	1972년생	175	전문대졸	금융직	서울	박천수	1975년생	160	대졸	회사원	경기도	오석범	1974년생	162	대학교	회사원	대전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모용우	1973년생	177	대학교	영업	충주	오귀석	1958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청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대식	1974년생	175	대학교	영업	충주	이진용	1955년생	175	고졸	회사원	충청						
박종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경기도	안영규	1977년생	168	대졸	회사원	충청						
최영상	1970년생	170	방통대졸	공무원	서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여인석	1973년생	183	대졸	회사원	경기도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정지현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청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정일준	1967년생	165	고졸	중공무원	서울	임재환	1970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전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선준	1974년생	157	대졸	회사원	인천	유우준	1971년생	167	고졸	회사원	대전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진인덕	1965년생	175	대졸	농사	경북	김정태	1957년생	162	대졸	회사원	경기도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졸	자영업	경기화성	연태환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대전	김태성	1958년생	172	대졸	공무원	충청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전우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충북	정현제	1965년생	174	대졸	제과점	충청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회사원	충북	김호준	1970년생	166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다환	1973년생	172	대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강중남	1973년생	160	고졸	회사원	충북	이기중	1971년생	175	대학교	회사원	서울						
김창영	1970년생	163	대졸	회사원	충주시	손종현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북	최성욱	1973년생	190	대졸	도예가	경기도						
박영하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김대식	1973년생	170	고졸	회사원	서울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울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정창식	1967년생	185	고졸	회사원	서울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부산	안상기	1966년생	175	고졸	공무원	충북												
배병인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부산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충북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울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호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